

고단열/친환경/건강주택 - PASSIVE HOUSE

건강하고 행복한 건축 프로젝트

시리즈 4 -
건축마감재 편



건축 마감재 편

- 1_ 전원주택에 옷을 입히자
- 2_ 스타일 따라 선택하는 주택 외장재
- 3_ 외장재 종류 알고 가자 - 외벽재
- 4_ 외장재 종류 알고 가자 - 지붕재
- 5_ 외장재의 터줏대감, 시멘트 사이딩
- 6_ 자연에 사는 듯한 착각이 드는 다양한 인테리어 합판
- 7_ 내 취향대로 꾸미기, 타일

전원주택에 옷을 입히자

어떤 외장재로, 어떤 분위기로?



외장재를 마음대로 골라 스타일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외장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우리 집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클래식, 모던, 지중해 3가지 스타일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자.

Classic Style_ 클래식 스타일

전원주택 외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꼽으면 사이딩과 벽돌, 아스팔트 싱글이다. 다른 외장재에 비해 가격이 싸면서 유지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시멘트 사이딩과 목재 사이딩, 크기와 형태가 다른 벽돌의 조화가 돋보이는 집

외벽 마감재 사이딩은 재질에 따라 목재, 비닐, 시멘트, 알루미늄 등으로 나눈다. 그 가운데 목재는 가공형태에 따라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한다. 벽돌은 진흙과 모래 또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해 틀에 넣어 구워 만든 것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느낌을 준다.

지붕재인 아스팔트 싱글은 재질에 따라 유리 섬유와 펠트로 나누는데 색상과 형태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사이딩과 벽돌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을 재질과 색상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사용한다.

Modern Style_ 모던 스타일

현대와 새로운을 뜻하는 모던은 심플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도 두루 쓰인다. 집을 모던 스타일로 연출하려면 디자인과 자재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벽은 스테코(Stucco)로, 지붕은 평지붕으로 설계하고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했다.

이 집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것은 색조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이다. 그 대신 형태의 변화로 입면에 재미를 주고 지붕 선을 달리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1층은 노출콘크리트로, 2층은 버티컬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한 철근콘크리트 주택

콘크리트가 갖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붉은색 목재사이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완화시킨다. 1층, 2층 2개의 심플한 직사각형을 교차시키고 전체적인 외형미를 감안해 크기가 다른 장방형 창들을 돌출시켰다.



강렬한 색감이 시선을 압도하는 철근콘크리트 주택

외벽에 붉은색 오일 스테인을 칠한 사선 패턴의 목재사이딩을 두르고 상부는 징크로 마감해 모던한 이미지를 띤다.

Mediterranean Style_ 지중해 스타일

지중해풍은 지중해 기후와 그 주변 나라들 특유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붕은 주황빛 점토 기와를 외벽은 미색에 가까운 코트류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중해풍으로 연출하기 위해 드라이비트나 스테코를 많이 사용한다. 드라이비트는 화려한 색상과 함께 단열 성능을 갖춰 경제적인 마감재로 꼽힌다. 색상 연출이 다양하지만 질감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연출할 수 없다. 스테코는 내·외장재 겸용으로 활용범위가 보다 넓다. 20가지 이상 각기 다른 질감 연출이 가능하다.



집의 스타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집은 현관만 전면 돌출시킨 단순한 박스형 구조에 외벽은 스테코로 지붕은 오지 기와로 마감해 일체감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기와와 치장벽돌의 색상을 통일하고, 그 사이에 스테코로 외관을 화려하게 연출한 복층 스타일하우스.

데크 위로 길게 이어진 아치형 아케이드(Arcade)는 유럽의 한 성에 온 듯 매력을 더한다. 아케이드 각 기둥과 외벽은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로 나뉘 하단부는 스마트 브릭으로 상단부는 흰 스테코로 마감했다. 지중해풍 건축물 외벽에 쉽게 접하는 거친 터치가 아닌 깔끔한 페인팅으로 전체적으로 느낌이 산뜻하다.

스타일 따라 선택하는 주택 외장재

주택 외장재가 점점 다양해진다. 하지만 어떤 외장재가 있는지 잘 몰라서, 알지만 선택 시도하기 어려워 선택을 주저하는 건축주들에게, 스타일별 외장재 조합을 추천해 본다.

STYLE 1_ Simple Modern

단순함의 미학

플랫 지붕, 외쪽 경사지붕을 한 간단하고 직선적인 형태가 특징인 스타일, 단색 컬러를 중심으로 금속이나 유리, 콘크리트, 벽돌 등의 소재를 더해 세련되게 정리한 주택

COLOR 흰색/회색/벽돌색/검은색



세 자매의 집 - 노출 콘크리트, 테라코트 그래스

구조 그 자체가 마감이기 때문에 노출콘크리트는 가장 순수한 재료로 평가받는다. 외관은 마당을 위한 배경이 되길 원해 최소한의 색채와 자재를 사용했다.



양평 펼친 집 - 전벽돌

고요한 시골 풍경 속 최소한의 선으로 이루어진 처마가 없는 주택은 한국식 전통전돌을 생산하는 한국토형와전의 전벽돌로 채워졌다.



파주 담류헌 - 큐블록

최근 들어 주택의 담장과 외벽 일부에 사용되는 두라스택의 큐블록 시리즈 중 O3 제품으로 타공된 블록은 담백하면서도 디자인적인 재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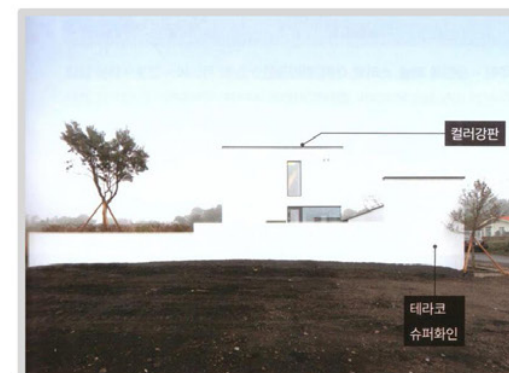
평창 C주택 - SKK 세라타이트 코팅

모던한 외관을 위해 선택한 흰 벽의 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 중의 배기가스나 분진이 부착하기 어렵고, 내약품성이 탁월한 SKK 세라타이트 코팅 처리했다.



스케테 - 산화동판, 이페 사이딩, 노출콘크리트

금속 광택이 나는 갈색 바탕에서 차츰 광택이 없어지며 녹청이 올라오는 산화동판은 빛에 따라 색을 만들어낸다.



A Gallery House - 컬러강판, 슈퍼화인

담장까지 흰색으로 맞춘 주택의 심플한 외관은 테라코리아의 슈퍼 화인으로 마감했다. 입자가 곱고 신축성이 있어 크랙 방지에 효과가 있다.

STYLE 2_ Natural Modern

온기 있는 집의 완성

직선이 강조된 외관에 목재나 자연석과 같이 자연의 감촉과 패턴을 강조한 외관 스타일로, 모던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더해 정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택

COLOR 흰색/나무색/연한주황색/불규칙패턴



광주 주택 - 울린목 패널, 스티코, 0.8T 컬러강판
절제된 선과 비례감이 돋보이는 입면은 상부는 스티코, 하부는 울린목 패널을 두 톤으로 마감했고 패널을 따라 현관문 스틸 소재에도 세로걸을 입혔다.

홍성 친환경 주택 - 적삼목셰이크, 테라코 그레놀, 0.5mm 아연도컬러강판
별도의 방부처리 없이 습기, 부식, 충해에 강하고 변형이 거의 없는 적삼목을 싱글처럼 겹쳐 시공해 불규칙한 패턴에 자연스러움이 배가된다.



양평 비한재 - 천연 대리석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유한 패턴이 그대로 펼쳐진 천연 대리석은 폴리코-Saint Clair 제품으로 무광택 마감인 혼드 처리를 통해 미려하고 중후한 매력을 드러낸다.

양평 삼각지붕집 - 아티즌 패널, 0.5mm 컬러강판
세계 각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바탕으로 내구성을 극대화한 강화 섬유 시멘트 소재의 자재(제임스 하디)로 색상이나 패턴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여유현 - 탄화코르크보드, 콘크리트 면처리 위 콘크리트스테인
포르투갈 유명 건축가 알바로 시자도 즐겨 사용하는 탄화코르크보드는 온도차에 따른 변형이 없고 방음 및 흡음 기능이 뛰어나다.

건원재 - 루나우드, 노출콘크리트
제한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1층은 재생 거푸집을 사용하고 2층 경량목구조 부분은 집을 지으면서 베어낸 소나무를 기억하기 위해 루나우드 위에 패턴이 새겨졌다.



STYLE 3_ Classic

유행을 타지 않는 고전적인

북미식 목조주택이나 유럽식 지중해 양식, 통나무 주택 등 경사지붕을 가진 외관으로, 각 지역성을 상징하는 스타일과 그에 맞는 외장재를 적용한 주택



분당 주택 - 케이뮤 세라믹사이딩, 청고벽돌, 스티코
경량목구조 주택으로 유지관리에 용이한 자재를 선호한 건축주 요청에 따라 청고벽돌로 마감해 무게감을 주었다. 도로에 면한 벽체는 스티코와 세라믹사이딩을 적절히 분할 배치했다.



원주 주택 - 테릴기와, 제작동판굴뚝, 스티코플렉스 베리언스, 아임스톤
유려한 곡선의 아치형 개구부가 인상적인 이국적 주택이다.



양평 시인의 마을 - 점토기와, 스티코플렉스, 목재
나무와 점토, 석재와 같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유럽풍 주택, 외부 가장자리에 목재를 더해 포인트를 주고 눈썹 처마 역시 기와로 선택했다.

A FRAME HOUSE - 평기와, Sto외단열시스템
68도 기울기의 중목구조 팀버프레임 주택으로 모던한 스타일의 점토기와를 지붕재로 택했다. 장당 4kg, 총 지붕만 16톤에 육박하는 무게다.



제주 산, 들, 바람집 - 적삼목사이딩, 컬러강판, 고벽돌
실내 면적 15평, 처마로 나간 대청까지 합쳐야 18평 남짓한 목조주택, 무절 제주산 적삼목 사이딩과 컬러강판, 회색 고벽돌로 단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제주 전통의 옥외 공간은 금속 프레임과 복층유리로 제작했다.

인천주택 - 이중그림자싱글, 스티코플렉스
경사지붕과 몰딩 벽이 돋보이는 클래식한 스타일이지만, 외장재는 과하지 않은 분위기로 선택해 택지지구 주변 집들과 조화를 이룬다.



용인 앤틱하우스 - 점토기와, 테라코트
앤틱 마니아인 건축주의 성향이 반영된 주택, 외벽 스티코색상을 공장에 특별히 주문 제작할 만큼 맞춤형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STYLE 4_ Traditional

전통의 재해석

직선이 강조된 외관에 목재나 자연석과 같이 자연의 감촉과 패턴을 강조한 외관 스타일로, 모던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더해 정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택

COLOR 검은색/고동색/진회색/나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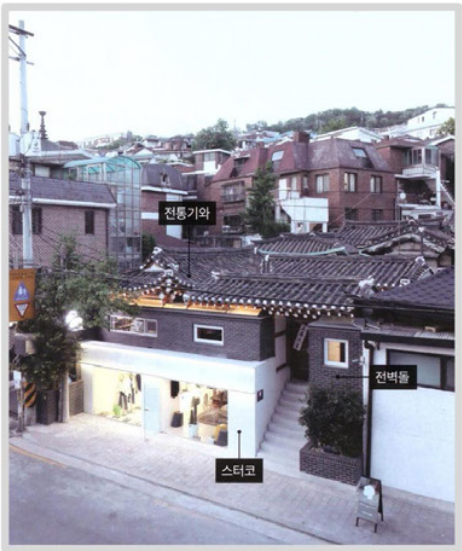
수원 호원재 - 한식점토기와, 스텐코, 전벽돌
노출된 목구조를 보호하는 더블스킨 개념으로 전벽돌을 쌓고 시멘트보드 위 백색 스텐코로 마감했다. 스텐코리스 물품기를 도입하고 지붕은 못 구멍과 접합부 요철을 추가 주문한 한식점토기와로 마감했다.

홍성 삼한주택 - 노출콘크리트, 스텐코플렉스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 2층 벽체와 지붕은 목구조로 시공한 현대 한옥이다. 노출콘크리트 면에 미송합판 쪽널로 포인트를 주고, 2층은 스텐코플렉스로 마감했다.



홍성주택 - 아스팔트 싱글, 외장합판
지붕은 돌회색의 아스팔트 싱글로, 외벽은 외장합판과 방부목을 그대로 노출시킨 간결한 마감으로 인상적인 집을 완성했다.

성북동 한옥 - 전벽돌, 전통기와
건축주의 개인 매장과 작업실, 응접실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 한국토형의 전벽돌 블랙 색상을 주 외장재로 삼고 전통기와를 올렸다.



세종시 주택 - 흙벽돌, 블록
항토를 고유압으로 찍어내 자연양생한 흙벽돌을 골조로 삼고 스페니시 기와는 지역 조례에 맞춰 짙은 회색으로 칠했다.

제주 위미주택 - 한식 오지기와, 스텐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한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골조를 최대한 그대로 두고 입면은 단일 색상의 스텐코로 마감, 제주의 전통 돌담과 현무암이 더욱 돋보이게 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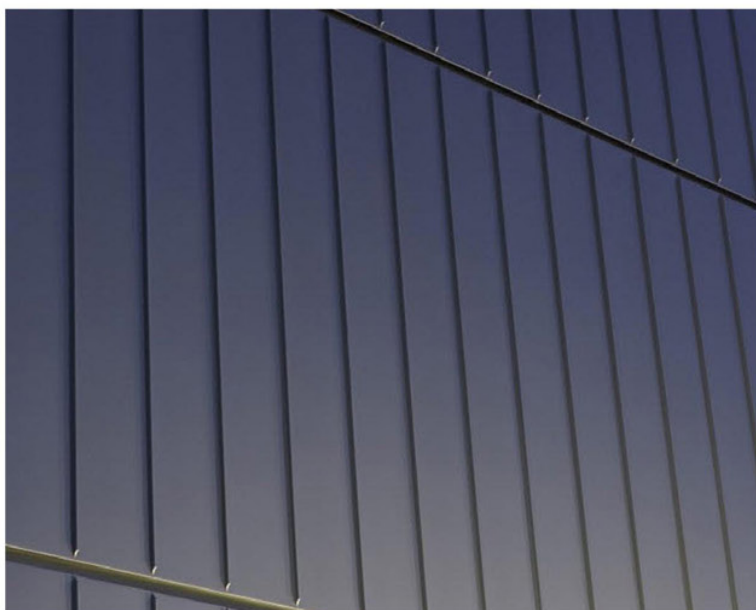
외장재 종류 알고 가자 - 외벽재

우리가 입는 옷마다 가지는 특징들이 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데이트를 할때 입는 옷도 있을 것이며, 결혼식때 입는 정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옷에 따라 분위기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내 집에 무슨 옷을 입힐 지에 따라 집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번에 그러한 외장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외벽재

1. 징크



99.9% 최고 순도의 아연에 티타늄, 구리가 합금되어 만들어진 마감재이다.

- 부식성이 없어 100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한다. 가공성이 높으며 100%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적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다른 외장재와 잘 조화되며,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내는데 최적화되어 모던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주목받고 있다.
- 단, 오리지널 징크의 경우 너무 고가여서 대부분은 리얼징크라고 하는 아연도금강판이다.

2. 세라믹 사이딩



일본 특유의 정교하고 깨끗한 코팅 공법을 적용해 자연스러운 패턴과 질감을 구현하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마감재이다.

- 표면이 세라믹으로 코팅돼 있어 열화가 거의 없어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없다.
- 세라믹사이딩은 품질이 높은 외장재 중 하나이다. 문제는 가격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다보니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 30평 기준으로 외장 시공비만 2000만 원 정도에 육박한다.

3. 시멘트 사이딩



심플하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마감재이다.

- 사계절의 변화가 많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높은 내구성으로 충격·저항력에 강하며, 특히 불연재로써 화재에 강하다.
- 오염에도 강하고 다채로운 질감과 색상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 시멘트 사이딩은 디자인 부분만 빼면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외장재임은 틀림없다. 만약 집을 짓는데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면 시멘트 사이딩으로 선택하길 바란다.

4. 스타코플렉스



고분자 수지의 특성으로 통기성과 향균성을 지니고 있는 마감재이다.

- 내화성, 차음성, 단열, 오염 방지 등의 성능이 뛰어나며, 탄성력 및 신축성이 좋아 시공 후 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스타코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타코 뒤에 플렉스가 붙은 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 플렉스가 붙어야 신축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벽에 갈라짐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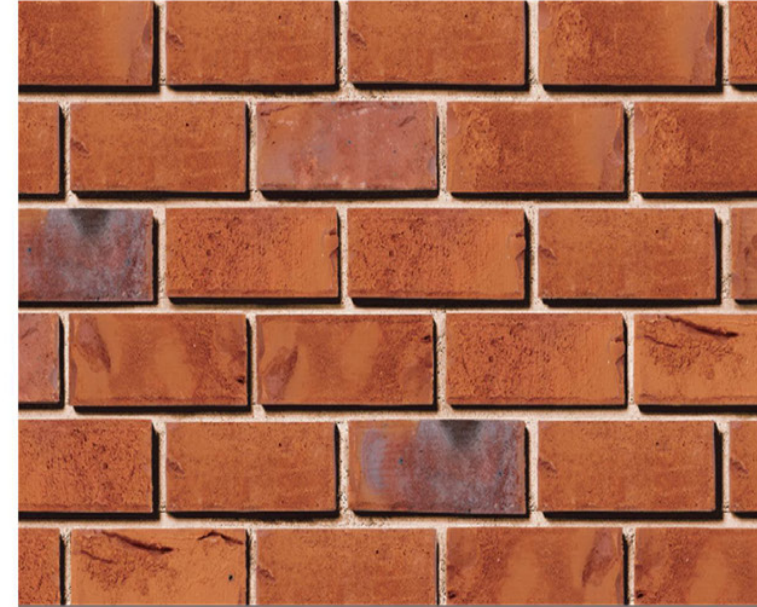
5. 파벽돌



파벽돌은 낡은벽돌과 같은 질감의 인조석의 한 종류로서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해 여러형태와 색상으로 성형 제품화한 것을 뜻한다.

-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으며, 가볍고 시공도 편리하여 건축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파벽돌 자체만으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외장재 뿐만 아니라 내장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평균적으로 원자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평당 5만 원~10만 원 사이로 대부분 원하는 파벽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6. 점토벽돌



- 점토 벽돌은 화재에 안전하고 어떠한 기후에도 잘 견딘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 후 유지비용이 들지 않아 가성비가 높다.
- 두께감과 단단함이 시각적으로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60대 이상 건축주들에게 1순위 외장재이다.
- 가격은 장당 600~1000원 정도 한다.

7. 현무암



- 현무암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인체에 유익하다. 또한 향균과 방충 효과의 흡착 탈취력이 강하며, 자연석 특유의 장식미를 뽐낼 수 있는 마감재이다.
- 1박스 단위로 판매되며, 3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1박스 당 3만원 정도이다.

8. 적삼목



적삼목은 수십 년간 내외장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고의 치수 안정성을 자랑한다.

- 내후성과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재라는 재질적인 한계성이 있어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 외벽 전체를 마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포인트로 조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외장재 종류 알고 가자 - 지붕재

우리가 입는 옷마다 가지는 특징들이 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데이트를 할 때 입는 옷도 있을 것이며, 결혼식 때 입는 정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옷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지고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내 집에 무슨 옷을 입힐 지에 따라 집에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번에 그러한 외장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지붕재

1.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사이에 강한 유리섬유나 종이 매트를 넣어 만든 것으로서 채색된 돌 입자로 표면을 코팅해 색상을 다양하게 연출한 마감재이다.

- 기와에 비해 무게가 1/5밖에 되지않아 하중으로 인한 구조재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한국에서는 정품이나 제대로 된 시공법으로 공사하지 않아서 매우 저렴하고 질이 안 좋은 자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미국주택의 대부분 아스팔트로 시공되며, 이미 품질 검증이 끝난 제품이다. 브랜드를 써튼티드사나 오웬스코닝사 같은 정품을 사용하면 하자율을 줄일 수 있다.

2. 오지(점토) 기와



모래나 유기물, 알칼리 성분을 제거한 점토 원토를 분쇄기에 갈아 미세한 분말로 만든 뒤에 용해하여 만든 마감재이다.

- 이국적인 느낌 좋아하는 분들께 최고의 지붕재로 각광 받고 있다.
- 비용은 30평 주택 기준 1200~130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든다.

3. 시멘트 기와



시멘트와 경질 세골재를 섞어 만든 '모르타르'를 원료로 하는 마감재이다.

- 최근에 시멘트양이 많은 모르타르를 고압프레스로 성형하고 물속, 공기속에서 양생해 표면에 무늬를 만들기도 한다.
- 석면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 사용되는 것은 수동 가압성형 대신 수압기나 유압기로 가압한 판형 시멘트 기와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 시멘트 기와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래된 시골집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시멘트 기와이다. 한옥 느낌이 나는 지붕재라 생각하면 된다.

4. 금속기와



갈바룸 강판과 알루미늄, 아연합금, 도금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이다.

- 금속 기와는 일반 기와의 1/6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운반이 용이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내구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 금속 기와는 아스팔트 싱글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와있어 미국 스타일의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5. 징크



징크는 아연(Zn)을 뜻한다. 얇은 판상재의 형태로 지붕과 외벽 등 건축 외장에 쓰인다.

- 외벽재에서 설명했듯 오리지널 징크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징크는 리얼 징크로 사용되었으며, 0.5T 이상만 사용하면 기능상 문제는 없으니 꼭 오리지널 링크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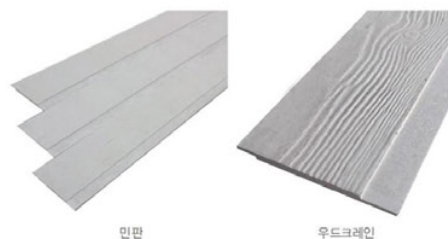
시멘트 사이딩은 단면에 텍스처 처리가 된 강화 섬유 시멘트 판재다. 시멘트와 모래를 원료로 자연스러운 나뭇결무늬를 만들 수 있다. 시멘트 사이딩은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외장재다. 그만큼 오랜 기간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투습 기능이 있어 목조 주택과 안성맞춤이다. 다른 외장재와 비교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시멘트 사이딩을 살펴보자.

시멘트 사이딩(7.5T×210×3,660mm)



우리가 흔히 시멘트 사이딩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수평으로 연결하고, 삼나무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수직 시멘트 사이딩(8T×150×3,660mm)



수직 채널 형식으로 연결한다. 집이 커 보이는 효과를 주며, 모던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SCG 스마트 랩 사이딩 V1(10T×180×3,000mm)



채널 형식으로 연결하는 시멘트 사이딩이다. 수직·수평으로 모두 연출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보다 폭이 조금 더 넓다.

싱글 사이딩(6.5T×387×1,219mm)



시멘트가 소재지만, 싱글과 같은 느낌을 주는 시멘트 사이딩이다.

칼라플러스(8T×160×3,660mm / 8T×210×3,660mm)



공장에서 특수 열처리 도장한 제품이며, 시공 후 별도로 도장 마감이 필요 없다.

스트리아(14T×325×4,200mm)



수평 채널 형식으로 연결하는 스트리아 사이딩은 프라이머 처리가 됐고, 시공이 간단하다. 무엇보다 유행을 타지 않아 모던한 디자인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엑손



엑손 사이딩은 채널 형식으로 연결한다. 프라이머 처리가 됐고, 시공이 편리하다. 균일한 수직 패턴에 샤프한 느낌을 추가한 외장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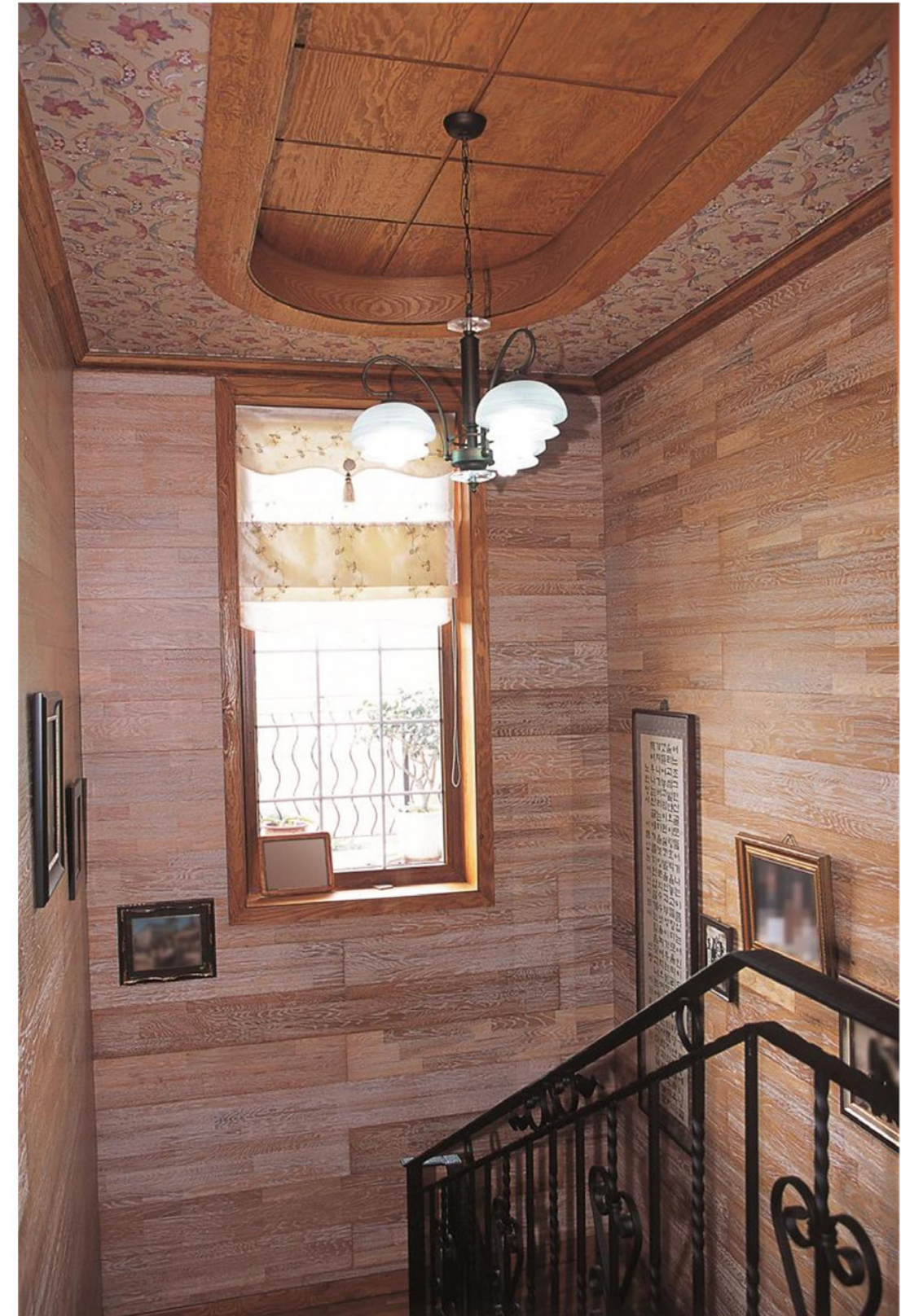
SCG 아리아라 사이딩(약 6T×800×400mm)



시멘트 소재로 만들었다. 다양한 패턴·컬러를 가지고 있어 따로 도장할 필요 없다.

6

자연에 사는 듯한 착각이 드는
다양한 인테리어 합판



외관이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건축주는 살면서 인테리어를 제일 많이 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인테리어 마감재 중 합판을 둘러보자.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한 합판도 있기에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다.



오동나무 합판

가볍고 뒤틀림이 적다.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나뭇결이 아름다워 가구의 뒷판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송 무절 합판

옹이 무늬를 싫어한다면 미송 무절 합판이 제격이다. 습기에 의한 변형이 적고 저렴한 편이다.



친환경 S합판

일반적인 나뭇결무늬가 아닌 스트라이프 무늬로 제작되어 모던한 표현이 가능하다. 합판의 여러 종류 중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고무나무 합판

묵직하고 수분에 강한 합판이다. 하드우드 제품 중 비교적 밝은 색을 띠고 자연스러운 무늬가 특징이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친환경 컬러 합판

천연 무늬목의 질감과 색상을 모던하게 재해석했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 번거로움을 절감할 수 있는 합판이다. 홈 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부터 방염제품까지 제품군이 다양하다.



머루사와 합판

노르스름한 컬러의 나이트 무늬가 강하지 않은 제품이다. 강도가 높아서 서랍 밀판이나 뒷판으로 주로 사용된다.



포플러 합판

결과 색상이 자작나무 합판과 비슷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대체상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작에 비해 강도는 떨어지나, 가볍고 가공성이 좋다. 색상도 자작보다 더 밝아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히노끼 무절 합판

가볍고 뛰어난 강도를 가진 합판이다. 하나의 판으로 연결된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갖고 있다.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돼 건강과 관련된 편의시설에서 자주 사용된다.

내 취향대로 꾸미기, 타일

집을 인테리어 하는 부분 중 타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조금은 생소해하신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타일과 매우 가까이 지내고 있고 자주 접하고 있다. 타일을 생각하면 다들 화장실만을 떠올리는데 아트월부터 바닥, 주방에 이르기까지 생각지도 못한 곳들에 타일이 쓰인다.

타일이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종류로 구분된다. 총 12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1. 도기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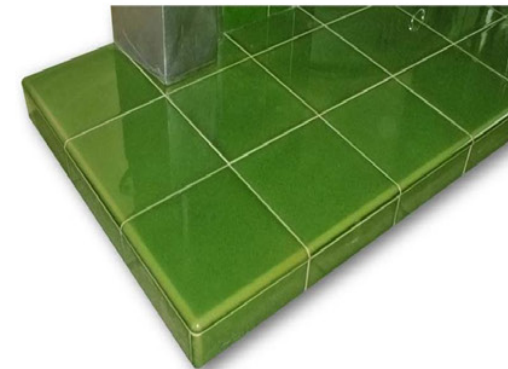


세라믹 타일이라고도 한다. 접착성이 좋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 내장 벽에 사용한다. 경도나 강도는 자기질 타일보다 약하지만, 두께가 얇고 가벼우며, 다양한 색, 디자인이 있다.

2.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보다 단단하고 무게가 나가며 수분 흡수율이 낮아 바닥과 외장타일로 주로 쓰인다. 색상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이 무광이다. 유약처리 유무에 따라 시유와 무유 타일로 구분된다.

- 시유 타일



수분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높으며 두께가 얇아 주로 바닥에 시공된다. 타일 치수 편차가 커서 타일 시공 시 줄눈 두께가 두껍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다.



월넛·화이트오크·레드오크 합판

특수목 단판을 입힌 합판으로 각 특수목의 특성과 결을 원목 대비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라우코 합판

다양한 형태로 표면이 처리된 제품이다. 용이가 없는 샌딩무절제품과 빈티지제품, 홈이 가공된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



패러렐 합판

패러렐(PSL)의 독특한무늬를 살려서 제작됐다. 고가의 공학 목재인 패러렐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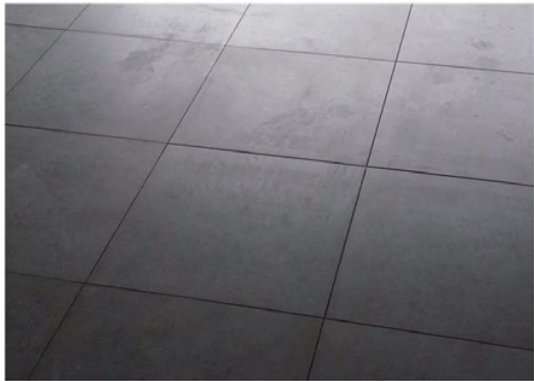
- 무유 타일

광택이 없는 타일로, 치수 편차가 거의 없어 시공 시 줄눈이 매우 얇거나 줄눈 없이 시공도 가능하다. 마감 방식에 따라 폴리싱 타일, 포세린 타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폴리싱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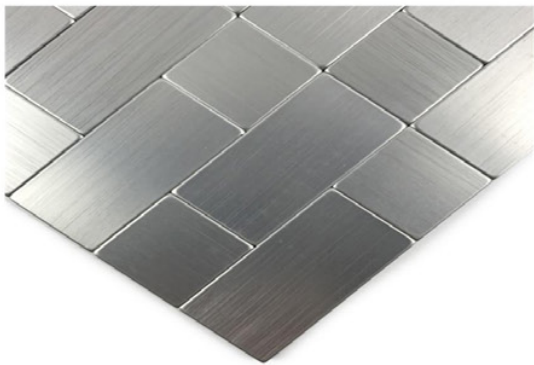
연마를 통해 대리석 효과를 내는 고광택 타일, 내구성이 우수하여 바닥, 벽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고급 대리석 느낌이나 선호도가 높다.



포세린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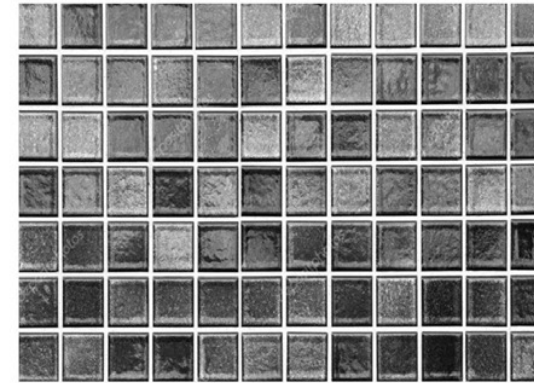
대부분 무광이라 모던, 심플한 분위기를 만들기 좋은 자재이다.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바닥·내외장재로 사용된다. 단점은 쉽게 오염된다는 점과 두께가 두꺼워 난방 열이 올라오기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대신 그 온기가 오래 유지된다.

3. 메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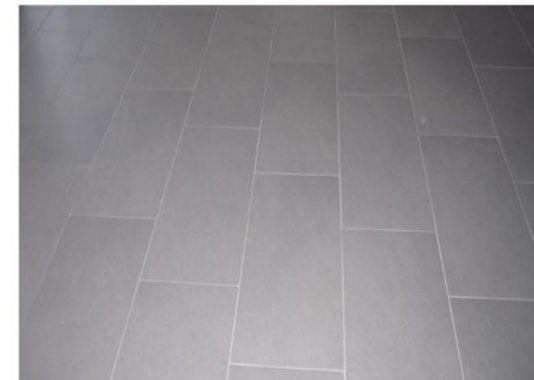
금속재를 모자이크 타일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주로 거실 아트월, 호텔의 로비 등에 쓰이며, 고가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곳에 주로 사용된다.

4. 모자이크 타일



보통 50mmx50mm 이하의 타일 조각을 모자이크처럼 만든 것이다. 사각형, 원형, 육각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소재도 다양하다.

5. 석기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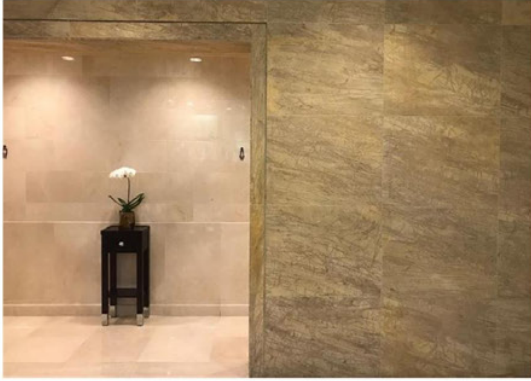
점토나 장식 등 1200도 전후로 연소시킨 타일로, 수분 흡수율 5% 이하인 타일이다. 자기질 타일에 비해 흡수성은 높지만 소재는 딱딱하며, 내후성이 뛰어나다. 질그릇의 소박한 느낌을 살린 자연소재이다.

6. 석재 타일



돌 성분을 혼합시켜 만든 자기질 타일, 항균효과가 있고 반영구적이며, 보통 욕실 바닥이나 테라스 바닥에 시공된다. 규격, 색상이 다채로워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7. 복합 대리석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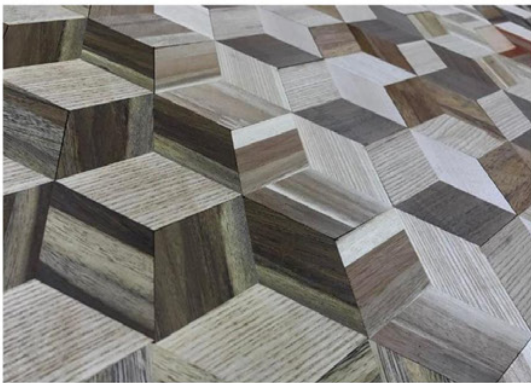
9mm 두께의 자기질 타일에 대리석을 2~3mm 정도 붙인 것이다. 대리석보다 가벼워 운반, 시공이 쉽다. 표면은 대리석 질감이나 천연대리석보다 강하고, 시공도 타일 시공법과 동일해 많이 애용된다.

8. 글라스 타일



유리 질감의 표면을 가진 타일로 투명감이 있다. 컬러 유리를 100mmx100mm 이하로 가공한 타일이라 생각하면 된다. 고급스러운 느낌이며,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여 셀프 인테리어 시 많이 찾는다.

9. 우드 타일



바닥재로 사용시 일반 장판의 몇 배나 될 정도로 단단함을 가진다. 단점으로 물청소 시 타일이 들뜨는 문제가 있어 물청소가 불가능하다. 친환경적인 느낌이 나는 고급 마감재이다.

10. 벽돌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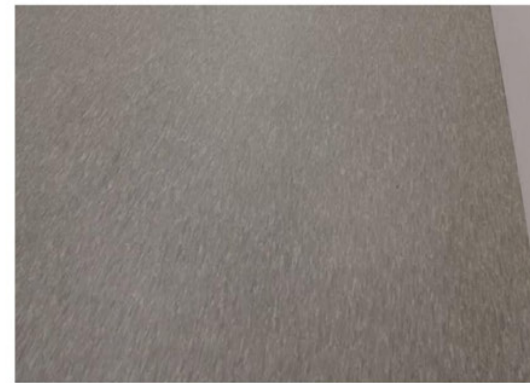
보통 다공질이라 많은 수분을 흡수한다. 외장, 바닥, 포인트 벽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최근 앤티크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 카페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된다.

11. 데코타일



PVC(염화비닐) 소재로, 내구성·내열성·내마모성이 뛰어나다. 특히 시공비가 다른 바닥재들에 비해 많이 저렴하고,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마루보다 쿠션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12. 디렉스 타일



건물 기본 바닥재 중 하나로, 재생PVC로 생산된다. 부착력이 좋아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데코타일보다 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준다. 마모, 훼손에 의한 미관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고단열/친환경/건강주택
-저에너지주택, 패시브하우스, 폐열회수환기장치

(주) 에너지  since1993

서울본사 02) 893-9370
부산 512-9370 / 제주 739-9370